

IN MEMORIAM

## 故 김정룡 선생님을 기리며

단풍이 물든 가을을 지나 어느덧 겨울의 초입에서 김정룡 전 대한소화기병학회 회장님(29대, 1990년~1991년)의 부고를 전합니다.

고인께서는 195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1966년 서울대학교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하신 이후 1971년부터 2000년 정년퇴임 시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 고인께서는 우리나라에서 학회 활동이 본격화되던 시기의 선두에서 한국간연구재단 이사장(1985년~2016년), 한국간연구회 회장(1987년~1989년), 아시아태평양 소화기병학회 회장(1988년~1992년), 대한내과학회 이사장(1989년~1992년), 대한소화기병학회 회장(1990년~1991년), 한국내과학연구지원재단 이사장(1992년~1996년), 대한내과학회 회장(1996년~1997년)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소화기연관 학회의 기반을 다져 후학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셨고 국내외 본격적인 학문 교류의 선봉장이 되셨습니다.

아울러 학문적으로도 찬란한 업적을 이루시어 1971년 세계 최초로 B형 간염 환자의 혈청에서 표면항원을 분리한 후, 1977년 B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셨고, 이후 개발된 백신을 실용화하여 널리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간질환 퇴치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이처럼 국민보건에 이바지한 업적을 높이 평가 받아 1984년 4월 국민훈장 모란장, 2011년 10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하기도 하셨습니다. 간염 백신 개발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는 1986년에 서울대학



故 김정룡 선생님

교 부설 간연구소를 설립하여 국가에 헌납함으로써 후학들의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고인께서는 최근까지도 몸소 C형 간염 바이러스 연구에 몰두하시는 등 끊임없이 교육과 연구에 정진하시며 후학들에게 참된 연구자, 교육자, 의료인의 자세를 전수하셨습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제자들에게 학문과 연구에 있어서 굳게 참고 견디어 마음이 흔들리거나 뜻을 빼앗기지 말라는 ‘견인 불발(堅忍不拔)’의 의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 사람도 의욕과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일을 이루지 못하므로 항상 굳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선생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자 합니다.

생전에 수많은 활동과 업적으로 잠시도 쉬실 틈 없으셨던 선생님께서 평안히 영면에 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동문 일동